

#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정당이 직면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고찰: 모로코와 튀니지 이슬람 정당의 소외 정당에서 기성 정당으로의 변모 과정\*

안소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방문연구원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정치적 변화는 이슬람 정당의 부상이었다. 기존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정치적 개혁의 요구 속에서 이슬람 정당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었다.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 세력으로 인식되었던 만큼 이슬람 정당은 정치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조직된 정치적 행위자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아랍의 봄 이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에서 이슬람 정당이 크게 선전하며 정치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집트를 제외하고 튀니지와 모로코에서는 여러 차례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이 선전하였다. 튀니지와 모로코의 이슬람 정당은 선거를 통해 다수의 표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온건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주류 기성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류 기성 정당으로 변화한 만큼 대중들의 기대는 높아졌고 대중들이 원하는 정치적 선택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최근 선거에서 잇따른 실패를 겪어야만 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슬람 정당의 변화 과정을 정치 이슬람의 변화가 아닌 하나의 소외 정당에서 주류 정당으로 변화한 정치 정당의 모습에서 분석하였다.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면서 사회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온건화하여 하나의 기성 정당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슬람 정당의 변화와 그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주제어** 이슬람 정당, 종교 정당, 포괄 정당, 온건화, 아랍의 봄

## I. 서론

2010년 아랍의 봄 발생 이전까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들은 주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는 반정부 세력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하여 이에 뿌리를 둔 여러 이슬람 단체들이 이슬람주의 주창과 함께 반정부 세력으로서 사회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슬람주의란 일반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

\* 본 연구는 2022년 추계 이슬람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발전한 논문입니다.

회 운동을 뜻한다. 그리고 나아가 단지 과거의 이슬람의 영광 재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교리에 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사상의 구현을 추구하는 포스트 이슬람주의(Post Islamism)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Bayat, 2007). 이슬람 단체들은 이슬람을 단순히 종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와 부합할 수 있는 정치적 사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Roy, 2017). 이러한 측면에서 로이(Roy)는 정치 이슬람을 정의하는 데 맥락주의자 관점(contextualist view)과 근본주의자 관점(essentialist view)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Roy, 2017). 맥락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국가가 정한 특정한 규범에 맞추어 이슬람을 변화하고자 한다(Roy, 2017). 이슬람주의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일관된 조직과 정치 행위자로서 살아남는 것이다(Roy, 2017). 그들이 사용하는 종교적 수사는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Roy, 2017). 한편, 로이(Roy)는 근본주의자적인 관점에서 이슬람은 근본적인 사상이며 세속적인 집단이나 정부에 대한 협력은 전략적인 전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Roy, 2017).

한편, 이처럼 다양한 사상과 태도를 지닌 이슬람 단체들은 아랍의 봄 이전까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에 도전하는 반정부 세력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취약한 정부 구조 속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재 정권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세력으로까지 인식되기도 했다. 때로는 이러한 저항 세력을 유화시키고자 선거나 의회 등의 제도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참여를 허용하면서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정당의 모습으로 공식적인 정치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정치 정당으로서의 이슬람주의 단체의 모습은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은 아랍의 봄 시위를 통해서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권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던 이슬람 정당들이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슬람 정당들은 이전 권위주의 정권에서 일종의 사회 운동 단체로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아랍의 봄을 통해 많은 기존의 독재 정권이 퇴진한 이후 실시된 첫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들은 이전부터 쌓아 온 조직력이나 인지도 등에 힘입어 빛을 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 출

신 자유정의당 모르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무슬림 형제단에 뿌리를 둔 튀니지의 엔나흐다당은 제헌의회 선거에서 승리, 모로코 개발정의당은 2011년 2016년 총선에서 두 차례나 승리하였다. 특히, 엔나흐다당과 개발정의당은 정치 영역과 종교 영역을 분리하여 일반 정치 정당의 모습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엄익란, 2022: 46). 아랍의 봄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개입이 없는 첫 선거에 참여했다는 것은 반정부적 성격을 가진 사회적 운동 단체로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 정당으로서 제도권 정치에 진입했음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의 승리는 새롭게 공식적으로 대중들의 인정을 받은 정당으로써 다시 정체성과 노선을 정비할 시점이 된 것임을 의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슬람 정당들의 진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모르시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물러나야 했으며 튀니지에서는 엔나흐다당이 정치 이슬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총선에서 선전하지 못했다. 모로코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실시된 두 차례 총선(2011, 2016)에서 이슬람 정당인 개발정의당이 승리하였으나 최근 2021년 선거에서는 참패를 기록해야만 했다. 아랍의 봄 이후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였던 이슬람 정당들이 다시 실패의 길에 들어선 것과 관련하여 정치 이슬람의 실패로 바라보는 의견도 있다(엄익란, 2022). 하지만 이미 이슬람 정당들이 이슬람주의만을 외치는 이슬람 정당의 성격에서 벗어나 다수의 득표를 얻은 대중 정당으로 변화한 만큼 정치 정당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반정부 세력으로서 주목받았던 이슬람주의 단체들이 아랍의 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정치와 그에 따른 성과를 보여 주어야 할 정치적 책임을 갖게 되었다. 대중과 함께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비판과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정치 행위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이슬람 정당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선거 패배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정당이 정치적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정치적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다시 쇠퇴의 길에 들어간 이유를 이슬람주의를 주창하는 정치 세력이 아닌 대중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일반 정치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종교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는 과

정에 대한 이론인 포용-온건화(inclusion-moderation) 이론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정당의 온건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4장에서는 이러한 온건화 과정을 거쳐 정치권에 진입한 이슬람 정당이 왜 다시 쇠퇴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 II. 종교 정당의 포용-온건화 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

‘온건화(Moderation)’는 온건주의자(Moderates)와 극단주의자(Radicals)의 합의를 통한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다. 린즈(Linz)와 알프레드(Alfred)는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을 온건주의자들과 온건주의에 반대하는 극단주의자들 간의 합의라고 정의하였다(Linz and Alfred, 1996). 민주화 과정 연구에서 엘리트 중심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을 온건세력이라고 묘사하는 반면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혁명적인 세력을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하였다(Przeworski, 1991). 온건세력은 기존의 정치 시스템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반면 극단 세력은 이와 반대로 기존의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려 하는 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Przeworski, 1991). 사토리(Sartori)는 극단 혹은 반체제 정당을 원칙적으로 정부에 반대하고 정부 여당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는 세력으로 정의했다(Sartori, 1976: 132-133). 이러한 관점에서 이슬람주의자들도 기존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극단 이슬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선거 등과 같은 기존에 있는 법적 채널을 통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세력은 온건 이슬람 세력이라고도 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요인과 과정에 의해서 극단 세력이 온건화 과정을 거치는가? 우선 온건화 과정이란 극단적인 사상이나 태도를 버리고 정권에 협조하거나 절충하려 하는 의지나 순응적 태도를 말한다. 특히, 선거 등과 같은 특정한 제도적 조건 속에서 정당들은 전략적으로 극단적 아젠다를 버리고 제도적 환경에 맞추어 태도를 변화하기 시작한다(Kalyvas, 2000; Share and Mainwaring, 1986: 175). 이러한 온건화의 과정은 포용(inclusion)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 같은 극단적인 세력이 정치적 다원주의에 힘입어서 법적인 정치 시스템으로의 포용이

허용되면 이러한 극단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온건화되는 것이다. 슈베들러는 온건화 과정을 배제되어 있던 단체들을 제도권 틀 안으로 영입하여 현 정권이 세워 둔 게임의 틀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Schwedler, 2011). 특히, 제도권 밖에 있었던 단체들이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이 가능해지면 더 많은 유권자들을 확보하고 지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온건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극단주의 세력들에게 공식적 혹은 합법적으로 일정 부분 정치 참여를 허용하게 되면 이들은 제도적인 이점을 활용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이념이나 사상을 온건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포용(inclusion)-온건화(moderation) 이론의 핵심이다(Schwedler, 2011). 극단 세력들도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들이 정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이라 할 수 있는 더 많은 득표 추구(vote seeking)에 나서게 될 것이다.<sup>1</sup>

한편, 이러한 온건화 과정은 크게 행동적 변화와 이념적 변화로 나눌 수 있다(Schwedler, 2011). 행동적 변화란 선거 참여, 회유, 비적대적 전략 등을 택하여 갈등의 평화적 조절을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Tezcür, 2010b). 일정한 정치적 제도나 환경적 변화가 극단 세력들을 제도권 정치로 들어오게 하였고 이에 따라서 극단 세력들은 선거나 정당 등의 공식적인 경로로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자 한다. 공식적인 정치 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현상을 극단 세력의 행동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상적 온건화란 정치 행위자들이 자주권, 정치적 다원주의, 국가 권력의 제한적 사용 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상을 독려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Schwedler, 2011). 이러한 행동적 온건화 과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사상적으로도 온건화가 이루어진다(Schwedler, 2011). 선거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정치 제도 속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과격한 표현이나 사상으로는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상도 유해지고 대중

<sup>1</sup> 선거에서 정당들의 주요 목표는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득표 추구(vote seeking), 정부의 주요 직책을 목표로 하는 관리 추구(office seeking),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구(policy seeking)으로 나눌 수 있다.

의 높이에 맞는 온건한 사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용-온건화 과정은 종교 정당에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종교 정당들의 포용-온건화 과정을 논의하기 전에 정당의 정확한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당이란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부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Downs, 1957). 민주주의는 흔히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대신하여 대중들의 정치적 이익을 반영하고 실현해주는 대의 대표제(representative democracy)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의 대표제를 실현해 주는 주요 정치적 행위자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 간에 조직화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의 주요 임무이다. 동원의 대리자(agency of mobilization)로서 정치 정당은 지역사회를 국가로 영입시키고 대중의 참여와 사회화를 조직화하여 민주주의 제도의 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Lipset and Rokkan, 1967). 시민사회와 정부의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식적 경쟁인 선거를 통해서 정당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를 대신해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고 실현하는 임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우선 다수의 표를 확보하여 의회에 진출하여야 한다. 특히,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많은 수의 표를 얻는 것(v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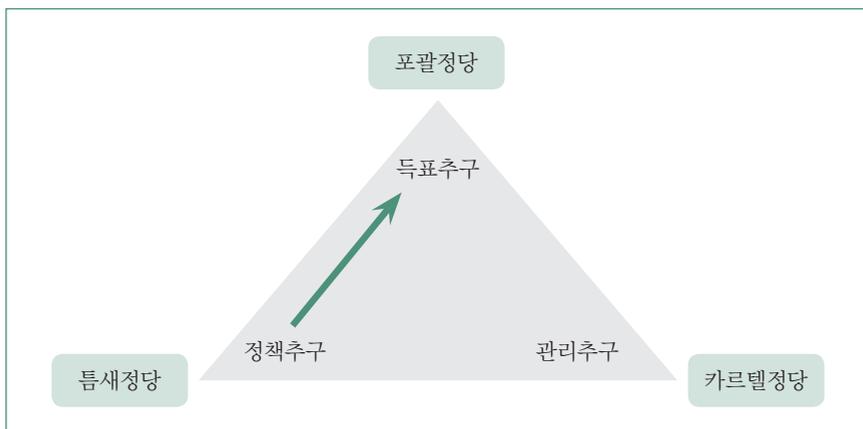


그림 1 주요 목표에 따른 정당 분류(Wolinetz, 2002 참고)

seeking)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 하며 유권자들 사이에 정치적 선호의 차이를 감지하여 정당의 이념을 변화시킬 우선적인 의무가 있다.

한편, 종교 정당이란 종교적 가치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동일한 종교를 지닌 유권자에게 표심을 얻고자 하는 정당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종교 정당은 투표나 공직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영향력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둔다. 일반적으로 종교 정당을 틈새 정당(Niche party)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틈새 정당은 특정 유권자들을 목표로 한다거나 특정 종교 메시지를 알리는데 집중한다(Meguid, 2005). 틈새 정당은 일부 특정 유권자들에 호소하기 때문에 다수의 득표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수의 표를 얻어야 정당 및 지지자가 원하는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의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Strom, 1990). 일반적으로 정당들은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선거에서 크게 실패했을 경우나 선거에서의 승리가 절박하게 필요할 경우 틈새 정당들도 주류 정당들의 아젠다를 받아들여 소수 정당도 주요 사상이나 아젠다를 변화시킬 수 있다(Meyer and Wagner, 2013). 틈새 정당이 전략적으로 포괄 정당으로 변화하고자 할 때 다수 유권자들에 호소할 수 있도록 정당의 전략이나 아젠다를 수정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Meyer and Wagner, 2013).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그들의 아젠다를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종교 정당에도 나타날 수 있다. 종교 정당들이 공식적인 제도권 정치에 유입되고 법적인 지위가 인정되면서 종교적인 정당들도 다른 일반 정당과 비슷하게 다수 유권자에 호소하여 많은 표를 획득하여 정치적 권력을 확대하려 한다. 정당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종교적 메시지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이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정책 입안을 위한 대리자인 만큼 의회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의회에 진출해서도 소수인 종교 정당은 다른 정당과 연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서 종교 정당들은 그들의 사상을 극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유권자에 호소할 수 있고 다른 정당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상적 온건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틈새 정당(Niche Party)이 포괄 정당(Catch all party)으로 변화하는 양상과도 비슷하다(Meyer and Wagner, 2013). 틈새 정당이 소수 정당으로서 한계를 느끼고 거대 정

당 즉 포괄 정당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다수의 유권자에게 호소하려 하는 모습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슬람 정당도 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인 정치에 참여하는 정당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권 정치 참여가 허용되면서 일반적 개념의 정당으로서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최대한의 표를 얻고자 하는 합리적인 행위자로서의 이슬람 정당이 아랍의 봄 이후 어떠한 태도 및 사상적 변화를 이루었으며 어떠한 변화의 요구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아랍의 봄 이후 정치 대안으로서 이슬람 정당의 부상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중동 전역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과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잇따랐다.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튀니지, 이집트 등에서는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하였고 모로코의 경우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튀니지에서는 벤알리(Ben Ali) 정권 퇴진 후 헌법 제정 등을 위한 첫 제한 의회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인 엔나흐 다당이 승리하였다. 이집트의 경우 무슬림 형제단 출신 모르시(Morsi)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모로코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실시한 선거에서도 이슬람 정당인 개발정의당이 국회 최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하였다. 이처럼 아랍의 봄 이후 실시된 각국의 선거에서 무슬림 형제단에 기반을 둔 이슬람 정당들이 잇따라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이슬람 정당들은 아랍의 봄 이전부터 사회단체로서 어느 정도 조직된 모습을 갖추었기에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자 새로운 대안으로 쉽게 부상할 수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이슬람 정당들이 아랍의 봄 이전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정치적 억압을 받아 왔기 때문에 반정부 세력으로 대중들에게 각인되었던 만큼 그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이라는 새로운 정치의 변화 속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무슬림 형제단에 뿌리를 둔 여러 중동 내 국가들의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이미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교류하고 있었다.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하위 계층이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계층으로부터

터 특히 큰 지지를 받았다.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경우 시민사회 단체의 역할도 하면서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좋은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El-Ghobashy, 2005). 튀니지의 엔나흐다당은 1970년 먼저 이슬람 성향 운동(Islamic Tendency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Meddeb, 2019: 4-6). 1980년대 벤알리 정권이 다당제 정치를 일부 허용하면서 엔나흐다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당 승인을 요청하였다(Ghannouchi, 2016: 60-62). 하지만 다시 거부당하고 정치적 억압 속에서 주요 인사들이 해외에 도피하는 등 아랍의 봄 이전까지 지하 단체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Ghannouchi, 2016: 60-62). 이러한 제한 속에서도 엔나흐다당은 그들의 반정부적인 태도와 저항의 이미지로 여전히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 아랍의 봄 이후 새롭게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모로코의 개발정의당도 이슬람주의 단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엔나흐다당과는 달리 1997년 정당을 설립, 모로코 왕정으로부터 공식적인 정당으로 인정받았으며 모로코 왕정과 큰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정치 참여를 지속해 왔다(Lakrini, 2022). 이러한 지속적인 정치 참여 경험은 개발정의당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추어진 조직력으로 아랍의 봄을 통해 이루어진 정치 개혁 이후 실시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주의 단체들은 아랍의 봄 이전부터 권위주의 정권의 자유화(Liberalization) 정책에 의해 일부 야당들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었고 이미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간섭이 있었지만 일정 기간 선거 참여 경험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에 저항하는 반정부의 이미지로 대중들의 지지도 어느 정도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아랍의 봄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으로 이슬람 정당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부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된 것이다.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이슬람 정당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이슬람 정당들이 종교적 사상만을 강조하는 정당이 아닌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대중들의 목소리에 호응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새롭게 포지셔닝해야 할 동기 부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튀니지의 엔나흐다당과 모로코 개발정의당 사례를 중심으로 이슬람 정당의 온건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출신 모르시 대통령이 집권 1년 만에 물러난 반면 엔나흐다당과 개발정의당은 아랍의 봄 이후 장

기간 공식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엔나흐다당과 개발정의당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 1. 행동적 온건화 과정

행동적 온건화란 제도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극단적이거나 혹은 배제된 단체들이 극단적 전략을 버리고 규범에 의해 행동하게 되는 변화를 말한다(Schwedler, 2011). 선거와 같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식적으로 경쟁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극단 세력의 행동이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헌팅턴(Huntington)에 의하면 온건화 과정은 민주주의적 합의 과정으로 야권 세력들을 제도권 정치 안으로 포용하여 야권 세력들이 그들의 요구를 수정하고 전략을 온건화함으로써 적절한 합의를 이루어 내고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하였다(Huntington, 1991: 169-170). 튀니지 엔나흐다당은 재스민 혁명 이후 첫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에서 1당으로 승리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엔나흐다당은 제헌의회 선거 이후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보내지 않았다. 엔나흐다당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보냄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반발과 혼란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는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이 자유정의당 후보로 모르시 대통령을 내세워 대통령 선거에 나선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엔나흐다당은 세속 정당과 권력 배분에 합의하면서 연립 내각을 구축하는 등 독립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제도권 틀 안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행동적으로 온건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행동적 온건화의 모습은 모로코의 개발정의당에서도 나타났다. 아랍의 봄 이전부터 모로코의 개발정의당도 왕정의 자유화 정책에 따라 일부 정치 참여가 허용되면서 선거에 후보를 내보내는 등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랍의 봄 이전에도 권위주의 왕정의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득을 얻어야 할지 이해하고 적당히 왕정과 협력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아랍의 봄 당시 주변국의 시위 확산의 영향을 받아 모로코 내에서도 내부적인 시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치적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개발정의당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기회로 여기고 정치적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하였

다(Buehler, 2013). 먼저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아서 시위 물결이 모로코 내부에서도 일어났지만 개발정의당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Spiegel, 2015: 4; Buehler, 2013).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왕정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위에 참여하면서 정권에 대한 저항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였다(Buehler 2013).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왕정에 대한 저항의 이미지로 대중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이것이 2011년 총선에서 개발정의당이 처음으로 의회 제1당이 되게 한 배경이었다(Buehler, 2013).

## 2. 사상적 온건화 과정

한편, 이러한 행동적 변화는 자연스럽게 사상적 변화도 동반하였다. 극단적인 단체들이 제도권 정치 틀 안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경로인 선거를 통해 경쟁하면서 사상적 온건화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정치 시스템으로의 유입은 정치 지도자들이 사상적으로 재정립하게 만든다(Schwedler 2011). 이러한 사상적 온건화 과정은 아랍의 봄을 거치면서 엔나흐다당과 개발정의당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엔나흐다당은 우선 정치 기조에서 이슬람을 버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드러냈다. 특히, 엔나흐다당은 이슬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튀니지 시민들의 일상의 문제 해결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Ghannouchi, 2016).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는 세속 정당과 이슬람 정당 간 갈등을 겪고 있었다. 더군다나 두명의 세속주의자들이 살해되고 이집트가 다시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모르시 정부가 물러나자 엔나흐다당은 튀니지 민주주의에 위기를 느끼고 극적으로 세속 정당과 합의를 이루고 헌법 제정에서 샤리아를 제외하는 것을 결정한다(Marks and Ounissi, 2016; 한새롬, 2021). 급기야 2017년 엔나흐다당은 정치 이슬람 기조를 없앨 것을 결정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엔나흐다당은 무슬림 민주주의(Muslim Democrat)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전격 선언하였다(Ghannouchi, 2016). 이러한 무슬림 민주주의야말로 엔나흐다당이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융합을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에 부합되는 표현이라는 평가가 따랐다(Marks and Ounissi, 2016). 모로코의 개발정의당도 이슬람주의에 크게 호소하지 않았다. 기존 정권이 퇴진한 튀니지와 달리 모로코는 여전히 왕정이 유지되고 있

었다. 개발정의당은 왕정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큰 대립각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다른 자유주의 혹은 세속주의 성향의 정당들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정의나 평등과 같은 사상에 기반한 기초를 펼쳐 나갔다(Ghafar and Hess, 2018: 10). 또한, 모로코는 이미 왕정을 기반으로 한 이슬람 국가라고 주장하며 정치 이슬람에 주력하지도 않았다(Ghafar and Hess, 2018: 10).

정당의 사상적 변화를 표면적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정당의 선언문(manifesto)이다. 보통 선거가 다가왔을 때 정당들은 정책 입안 선호도 등의 내용이 담긴 정당 선언문을 작성하여 유권자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정당 선호도를 통해서 정당이 추구하는 사상이나 계획, 정책 등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알 수 있게 된다. 튀니지 엔나흐다당의 경우 정당 홈페이지에 정당 선언문과 비슷한 양식의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사상을 요약한 자료가 있었다. 그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엔나흐다당은 명확하게 사상적으로 온건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랍어로 기본 시스템(النظام الأساسي)이라고 명시된 자료에는 우선 엔나흐다당이 이슬람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슬람 법인 샤리아에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에 근간으로 한 정당이며 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림 2).

엔나흐다당은 그들이 중점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을 통한 시민들의 주권 확립, 자유, 정의, 인권 등으로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의 확립 등을 추구한다고 정의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

حركة النهضة حزب سياسي وطني ذو مرجعية إسلامية يعمل في إطار الدستور ووفقاً لأحكام المرسوم عدد 87  
 2011 في حركة النهضة حزب سياسي وطني ذو مرجعية إسلامية يعمل في إطار الدستور ووفقاً لأحكام المرسوم عدلستة  
 الإسهام في بناء تونس الحديثة، الديمقراطية المزدهرة والمتكافئة والمعززة بدورها وهويتها وتوسعي إلى ترسيخ قيم  
 المواطنة والحرية والمسؤولية والعدالة الاجتماعية

엔나흐다당은 이슬람 교리를 지닌 국가 정치 정당으로 국가의 헌법 틀 안에서 운영한다. 엔나흐다당은 2011년 9월 24일 제정된 헌법 조항 87조, 정치 정당과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운영한다. 현대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번영하며, 통합되고, 튀니지의 종교와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튀니지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공화국 제도 틀에서 운영되며 국가적 가치와, 자유, 책임감, 사회적 정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그림 2 엔나흐다당 강령, 엔나흐다당 홈페이지

حماية الاستقلال الوطني واستكمال أبعاده وتنمية مكتسباته وصيانة الوحدة الوطنية وتفعيل وحدة المغرب العربي  
 ودعم التوجهات الوحدوية بين الشعوب العربية والإسلامية

국가의 자주권을 보호하고, 국가 자주권의 영역과 이미 이루어낸 성과들의 발전, 국가 통합의 수호, 아랍 마그레브 지역의 통합의 활성화, 아랍과 이슬람 국민들의 단일화를 위한 지원

تكريس مبدأ سيادة الشعب عبر بناء الدولة الديمقراطية، المدنية، العادلة والعمل على تحقيق المساواة بين  
 المواطنين وتطوير بنى المجتمع المدني وتحرير آلياته أداء دوره الكامل في الإسهام في التنمية الشاملة

민주주의, 시민, 공정한 국가 건설을 통해 국민의 자주권 원칙을 확고히 하며, 국민 간 평등을 실현  
 하고, 시민사회 구조를 발전시키고,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시민사회 장치의  
 자율화의 실현

그림 3 엔나흐다당 강령, 엔나흐다당 홈페이지

당들이 보이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그림 3).

정당의 정책 기조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역할 강화, 청년과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균형 잡힌 경제 건설, 자주적인 외교 정책 등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느 일반 정당에서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외교 정책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이슬람 정당이라는 기본 정체성도 함께 유지하려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

한편, 모로코의 개발정의당은 2021년 선거 기간 동안 선거 공약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하지만 선거 공약에서 이슬람주의를 표방한다거나 이슬람과 관련된 메시지는 발견하기 힘들었다. 일반 정당에서 볼 수 있는 사회, 경제, 복지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정의 실현, 취약 계층 보호, 여성 보호, 의료 보험 혜택 확대 등 일반 정당과 같은 복지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5).

이처럼 튀니지의 엔나흐다당과 모로코의 개발정의당은 10년여 가까이 제도권 정치의 범주 안에서 주류 정당의 모습으로서 활동하면서 행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온건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표면적인 사상과 활동 측면에서 이 두 정당은 이슬람 정당인지 가늠할 수 어려울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온건화된



그림 4 엔나흐다당 강령, 엔나흐다당 홈페이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두 정당 모두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슬람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원에서 일반 정당과 비슷한 대중 정당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 이슬람의 실패로 분석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슬람 정당이 온건화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أكد حزب العدالة والتنمية التزامه بالعمل على تشجيع الاستثمار باعتباره المدخل الأساس لإنتاج الثروة، ورفع نسبة النمو، وحل معضلة التشغيل وتقليص الفوارق الاجتماعية والمجالية

개발정의당은 부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득원으로써 투자 촉진과 성장률 상승과 일자리 문제 해결, 사회와 현장의 격차 감축에 의무를 다할 것이다.

أكد حزب العدالة والتنمية، على اعتماد نظام جبائي يترجم انتظارات الجميع، فضلا عن إعطاء أهمية خاصة ل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개발정의당은 모두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세제 도입, 인공지능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과할 것을 강조하였다

أكد حزب العدالة والتنمية، التزامه للعمل على تعزيز إنتاجية وتنافسية الاقتصاد الوطني، بهدف تجاوز معوقات النمو وتطوير آليات التنمية

개발정의당은 국가 경제의 생산성, 경쟁력 제고에 의무를 다할 것이며 성장과 개발 활동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25 ألف منصب شغل سنويا، فضلا عن تحقيق انتقال 160 التزم “المصباح” بالعمل على إحداث أكثر من ألف وحدة من الاقتصاد غير المهيكل إلى المجال المهيكل

개발정의당의 선거 공약 프로그램인 Almisbah는 연간 1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만 5,000개의 작업장을 비공식적인 경제로부터 공식적인 작업장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그림 5 모로코 개발정의당 2021년 총선 공약, 개발정의당 홈페이지

에 없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그림 6).

#### IV. 소외 정당에서 기성 정당으로의 변화

이처럼 새로운 정치 대안으로 등장한 이슬람 정당들의 권력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슬람 정당들의 실패는 정치 정당으로서 대중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وتضمن برنامج العدالة والتنمية أيضا، تفعيل نظام السجل الاجتماعي الموحد، وذلك بهدف توحيد المعلومات الاجتماعية والاقتصادية للمواطنين والأسر، من أجل استهداف منصف وناجع حول الفئات الهشة والفقيرة التي ستستفيد من الإعانات والبرامج الاجتماعية.

개발정의당 프로그램은 시민들과 가정의 사회, 경제 정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목표로 사회 프로그램 및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취약 및 하위 계층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하기 위하여 단일화된 사회 등록 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أكد حزب العدالة والتنمية، على تعزيز الجهود الرامية لإنجاح ورش التكفل بالأيتام، واعتماد سياسة مندمجة لحماية هذه الفئات.

개발정의당은 고아 보호 워크숍의 성공과 이러한 고아 계층 보호를 위한 통합된 정책 적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أكد حزب العدالة والتنمية التزامه بالعمل على توسيع التغطية الصحية الأساسية، وذلك في إطار تعزيز وتطوير برامج المساعدة الاجتماعية المختلفة.

개발정의당은 다양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발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 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림 6 모로코 개발정의당 2021년 총선 공약, 개발정의당 홈페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모로코의 개발정의당이나 튀니지의 엔나흐다당은 아랍의 봄 이후 10여 년 동안 정치의 주역에 있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최근에 있었던 선거에서 참패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중동 지역에서 정치 이슬람이 쇠퇴하였다는 의견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이 두 정당은 이슬람 정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 특히,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개혁에 대한 기대와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두 정당은 공식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온건화가 이루어졌고 하나의 대중 정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선거에서의 잇따른 승리는 오히려 대중들이 이슬람 정당을 하나의 기성 정당으로 바라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 정당으로써 대중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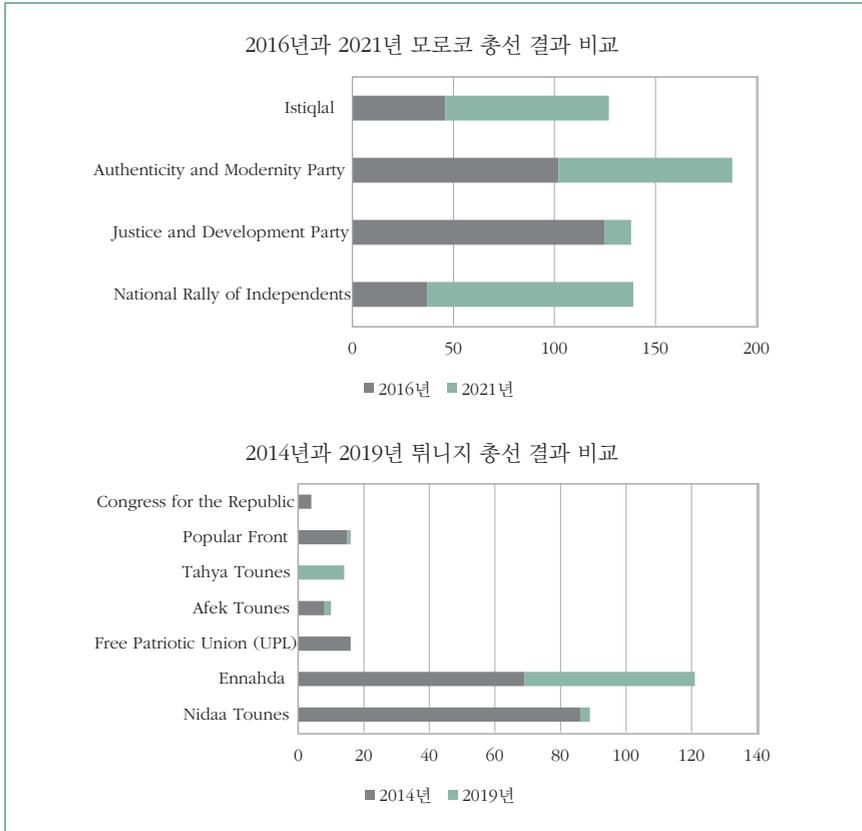


그림 7 모로코와 튀니지 최근 2차례 선거 결과 비교

가하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다.

엔나흐다당의 경우 먼저 이슬람 기초를 버리고 순수한 정치 정당이 되겠다고 한 결정과 함께 전략과 정체성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엔나흐다당의 내부 및 외부의 정치적 압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2011년 재스민 혁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정당의 칭호를 갖게 된 엔나흐다당은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Meddeb, 2019). 내부적으로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슬람 샤리아를 헌법의 근간으로 둘 것인지를 두고 강경파와 실용파로 나뉘었다(Meddeb, 2019). 또한, 외부적으로도 엔나흐다당은 2011년 제헌의회에서 승리하면서 다른 정당들과 협력하고 합의를 이루어 내

야 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Marks and Ounissi, 2016). 즉, 제도적인 환경이 엔나흐다당을 행동적 온건화 과정을 거쳐 제도권 정치에 참여하게 하였고 결국에는 사상적으로도 절충점을 찾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파격적인 온건화 과정은 엔나흐다당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 주었다.

먼저, 엔나흐다당은 정치 이슬람의 기초를 버렸지만 여전히 정체성의 위기에 놓여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에게 동등한 상속권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헌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나타났다(김효정, 2022). 2018년 튀니지 베지 카이드 에 셉시(Beji Caid Essebsi) 대통령은 여성들에게 동등하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으나 엔나흐다당은 이에 반대를 표했다(Middle East Eye, 2018).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핵심 지지자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Meddeb, 2019). 이미 여러 측면에서 엔나흐다당은 대중 정당 혹은 포괄 정당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기존의 이슬람 정당으로서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정치적 사상의 변화 속에서 엔나흐다당은 어떠한 유권자의 표심에 공략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정체성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워싱턴 소재 국제공화주의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정부 운영에서 이슬람 종교에 주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튀니지 대중들이 2014년 84%에서 2017년 62%로 하락하였다(Yerks, 2018). 실제로 엔나흐다당은 젊은 층으로부터 종교적인 특색을 가진 정당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었다. 그러나 엔나흐다당은 정치 이슬람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존 지지층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Grewal, 2020). 즉, 이슬람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정당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체성 혼란과 당 내부 갈등 양상은 모로코 개발정의당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먼저 개발정의당도 엔나흐다당과 비슷하게 이슬람 정당이라는 뿌리를 두고 사상적 정체성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로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개발정의당 입장의 모호함이었다. 2020년 12월 미국의 중재하에 오랜 분쟁 지역이었던 서사하라 지역에 대한 모로코의 자주권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모로코 왕정은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을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체결하였다(Ragione, 2021). 이에 따라, 개발정의당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Ragione, 2021). 하지만 이러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앞두고 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정의당은 이슬람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이스라엘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 정상화를 거부해 왔다. 모로코 정부의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발표가 나오자 초기에는 시오니즘의 점령과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살인과 범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하였다(Ragione, 2021). 모로코는 아랍의 봄 여파로 일부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외교 정책은 의회가 아닌 왕정이 결정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정에 반기를 두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비난하면 정책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판단하여 개발정의당은 더 이상 비난하려 하지 않았다. 개발정의당이 추진하던 사회·경제 개혁에 있어서 왕정과 큰 대립 없이 추진하기 위함이었다(Ragione, 2021).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모로코 대중들에게는 모호한 태도로 보여져 개발정의당이 대중들로부터 신의를 잃게 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두 번째 이슬람 정당들이 직면한 문제는 시민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자로서 역할에 대한 기대감에서 생기는 차이점에서 나타났다. 정당이 시민들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하는 정책을 입안하여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슬람 정당과 일반 정당 사이의 괴리감이 발생하게 되었다. 엔나흐다당은 경제 자유화를 받아들이고 사유 재산권, 경쟁 강화 등을 장려하는 경제적 자유 원칙을 고수하였다(Salem, 2020: 696). 엔나흐다당은 사회적 정의와 소외되고 빈곤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동시에 개방 시장 경제에 필요한 원칙도 고수해야만 했다(Salem, 2020: 711). 특히, 엔나흐다당의 주요 지지층의 45%가 하위층에 속하고 30%가 남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엔나흐다당이 추구하는 경제 자유화 정책과 지지층 간에 이익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았다(Ayari, 2009). 일례로 엔나흐다당은 자신들의 주요 지지층에게 경제적 타격을 가져다줄 수 있는 IMF 개혁을 지지하였다. IMF가 제안한 개혁안은 공공 분야 채용 동결, 연료 보조금 인하,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등 엔나흐다당 지지 계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개혁안이었다(Meddeb, 2019). 즉, 이처럼 대중 정당과 다수당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공식적인 정치로 들어온 엔나

흐다당은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함을 느꼈다(Meddeb, 2019).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하였고 정당 구성원도 다양한 분야 출신의 사람들을 많이 영입했다(Meddeb, 2019). 특히, 2019년 선거를 앞두고 2년간의 정당 회원으로 가입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없애고 다양한 출신의 후보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Meddeb, 2019).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엔나흐다당 내부에서 구시대 회원들과 새로운 회원들 간의 대결을 이끌어서 당의 화합에 장애가 되기도 하였고 당 내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로코 개발정의당 또한 경제 세계화와 자유화의 기초를 추구하면서 재정 균형과 반부패 정책을 펼쳐 나갔다(Yildirim and Zhang, 2021). 개발정의당은 아랍의 봄 이전부터 터키 이슬람 정당의 경제 자유화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세계 경제와의 통합, 수출 장려, 중소기업 장려 등의 원칙을 추진했었다(Yildirim and Zhang, 2021). 아랍의 봄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모로코 왕정은 정치적 자유화, 부패 척결, 실업 문제 개선 등 경제 발전에 집중했다(Yildirim and Zhang, 2021). 개발정의당도 의회 제 1당으로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전에는 야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지만 아랍의 봄 이후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모로코도 다른 아랍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아랍의 봄 시위에서 얻고자 한 가장 큰 목표인 것으로 설문 조사에서 나타났다(Yildirim and Zhang, 2021). 하지만 개발정의당이 추진했던 경제 정책은 단시일 내에 성과를 보지 못했다. 해외 투자 확대 정책은 높은 실업률을 양산하고 생활비 상승으로 이끌었다(Yildirim and Zhang, 2021). 개발정의당은 실제로는 왕정에 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 생각하고 투표한 시민들이 많았지만 왕정은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고 개발정의당은 제대로 제 1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왕정은 실패한 정책은 개발정의당 탓으로 돌리는 등 개발정의당과 왕정과의 불협화음은 개발정의당에 대한 지지도만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Yildirim and Zhang, 2021). 왕정은 유권자로부터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개발정의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정치 개혁 노력에서도 개발정의당은 온전히 자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

황이었다. 일례로 개발정의당은 부패 척결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기구가 권한을 가지고 부패 관련 조사를 하게 되면 왕정과 관련된 세력에게 그 화살이 향할 수도 있었다(Yildirim and Zhang, 2021; Fakir, 2017). 따라서 개발정의당도 이슬람 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원했던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왕정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호한 정체성은 결국 선거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엔나흐당이나 개발정의당이나 과거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이어져 오는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실질적인 구조적 개혁과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Cimini, 2017). 그리고 그들이 내건 공약들도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이슬람 정당들은 아랍의 봄 이전의 정부들이 추진한 경제 정책과 어떠한 차별화를 내걸지도 못했다. 특히, 모로코 개발정의당의 경우 아랍의 봄 이후 일부 헌법이 수정되는 등 개혁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왕정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Cimini, 2017: 64). 또한, 튀니지 엔나흐당의 경우도 아랍의 봄 이후 선거를 통해 공식적인 제도권 정치로 들어온 만큼 다른 정당들과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Parolin, 2015). 이에 따라 엔나흐당만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어느 정당도 적극적인 경제 개혁 정책을 펼치지 못하며 대중들의 민심을 얻지 못했다(Cimini, 2017: 63). 무엇보다도 아랍의 봄의 발단이 대중들의 경제적 절망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정치·경제 개혁을 통해 자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권위주의 정권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중들로부터 선택받은 이슬람 정당들이 이러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민심을 반영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기성 정당으로 변모한 만큼 이슬람 정당들은 대중들의 경제적 좌절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오히려 소극적인 경제 개혁 정책 추진으로 대중들에게 경제적 절망을 다시 안겨준 것이 이슬람 정당이 민심을 잃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최근 잇따른 선거에서 이슬람 정당이 패하거나 저조한 결과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정치 이슬람의 실패라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정치 이슬람의 실패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다. 아랍의 봄 이후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적 개혁이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슬람 정당은 하나의 일반 정당으로서 제도권 정치로 진입하였다. 아랍의 봄 이전까지는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는 저항 세력의 이미지가 강했다. 또한, 일부 유화 정책을 펼치는 정권에 따라 다당제 선거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주된 정치 세력이 아닌 야권 세력 혹은 배제된 세력으로 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아랍의 봄 이후 이슬람 정당들은 이전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대체 세력 혹은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제도권 정치의 틀 안에서 주도 세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권 정치의 틀로 진입하여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슬람 정당은 특정한 종교 정당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대중 정당으로서 역할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슬람 정당은 특정한 정책을 추구하는 틈새 정당이 아니라 다수의 득표를 추구하게 되는 주류 기성 정당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수 유권자의 지지가 필요한 주류 기성 정당으로서 위치의 변화는 이념적으로도 다수 대중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요구되었다.

이슬람 정당임에도 이슬람의 가치나 기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정당으로서 대중들의 실질적인 정치적 이득을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상적으로도 온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주류 기성 정당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슬람 정당과 대중 정당이라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이라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정당을 실용적 정책을 입안하는 대중 정당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종교적 특색도 유지하는 종교 정당이라는 모습을 동시에 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이슬람 정당들은 기존의 이슬람 정당으로서 지지했던 유권자들과 새롭게 주류 정치에 진입한 대중 정당으로서 지지한 새로운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느 지지층에 주력해야 할 것인지 난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슬람 정당은 다수 대중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기성 정치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정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실용적인 정책이라는 결과물을 유권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동시에 종교 정당의 정체성을 유지하길 희망하는 기존의 지지자들도 공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슬람 정당의 혼란기는 정치 이슬람의 쇠퇴라기보다는 소외되었던 정치 세력에서 기성 정치 세력으로 새롭게 탄생한 정당이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을 때 대중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정치적 정체기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본다. 이슬람 정당은 본래의 정치 이슬람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틈새 정당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외연을 확장하면서 포괄적인 기성 정당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기로에 선 시점이다.

투고일: 2023년 2월 15일 | 심사일: 2023년 3월 10일 |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3일

## 참고문헌

- 김효정. 2022. “민주화 혁명 이후 튀니지 세속주의의 변화: 2014 신헌법과 2017 여성 관련법 개정과정에서의 시민사회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3권 2호, 145-172.
- 엄익란. 2022. “이슬람주의 흐름 변화에 대한 연구: 정치이슬람에서 시민이슬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중동연구』 41권 1호, 27-56.
- 한새롬. 2021. “‘아랍의 봄’ 10년 후: 튀니지 민주화의 재조명.” 『한국중동학회논총』 42권 1호, 99-124.
- Ayari, Michael Bechir. 2009. “S’engager en régime autoritaire. Islamistes et gauchistes dans la Tunisie indépendante.” PhD Thesis (Michel Camau). Aix Marseille 3 University.
- Bayat, A. 2007. *Making Islam Democratic: Social Movements and the Post-Islamist*

- Turn. Stanford University Press.
- Buehler, M. 2013. "The Threat to "Un-moderate": Moroccan Islamists and the Arab Spring." *Middle East Law and Governance* 5(3), 231-257.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5(2), 135-150.
- El-Ghobashy, M. 2005. "The Metamorphosis of the Egyptian Muslim Brot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37(3), 373-395.
- Fakir, I. 2017. "Morocco's Islamist Party: Redefining Politics under Pressure."
- Giulia Cimini. 2017 "The Economic Agendas of Islamic Parties in Tunisia and Morocco: Between Discourses and Practices." *Asian Journal of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 11(3), 48-64.
- Ghafar, A. A. and B. Hess. 2018. *Islamist Parties in North Africa: A Comparative Analysis of Morocco, Tunisia and Egypt*. Doha: Brookings Doha Center.
- Ghannouchi, R. 2016. "From political Islam to Muslim Democracy: The Ennahda Party and the Future of Tunisia." *Foreign Aff.* 95, 58.
- Grewal, S. 2020. "From Islamists to Muslim Democrats: the Case of Tunisia's Ennahd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4(2), 519-535.
- Huntington, S.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alyvas, S. N. 2000. "Commitment Problems in Emerging Democracies: The Case of Religious Parties." *Comparative Politics*, 379-398.
- Lakrini, Idris. 2022. "The Rise and Fall of Morocco's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European Eye on Radicalization*. <https://eeradicalization.com/the-rise-and-fall-of-moroccos-justice-and-development-party/>(검색일: 2022. 12. 23.).
- Linz, J. J., J. J. Linz, and A.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Jhu Press.
- Lipset, S. M. and S.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S. M. Lipset and S.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1-64. Toronto: The Free Press.
- Marks, Monica and Sayida Ounissi. 2016. "Ennahda from Within: Islamists or Muslim

- Democrats?” Brookings Institute.
- Meddeb, H. 2019. *Ennahda's Uneasy Exit from Political Islam*.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Meguid, B. M. 2005. “Competition between Unequals: The Role of Mainstream Party Strategy in Niche Party Succes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 347-359.
- Meyer, Thomas M. and Markus Wagner. 2013. “Mainstream or Niche? Vote-seeking Incentives and the Programmatic Strategies of Political Part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10), 1246-1272.
- MEE staff. 2018. “Tunisia’s Ennahda Rejects Proposal to Enshrine Secular Inheritance into Law.” *Middle East Eye* (27 August).
- Parolin, G. 2015. “Constitutions Against Revolutio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North Africa.”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42(1), 31–45.
- Przeworski, A. 1991. *Democracy and the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gione, Tiziana Della. 2021. “Morocco’s Normalization with Israel: The Party for Justice and Development (PJD)’s Reaction.” Tel Aviv Notes.
- Roy, Olivier. 2017. “Review of Political Islam After the Arab Spring: Between Jihad and Democracy.” *Foreign Affairs* 96(6), 127–132.
- Salem, Maryam Ben. 2020. ““God Loves the Rich.” The Economic Policy of Ennahda: Liberalism in the Service of Social Solidarity.” *Politics and Religion* 13(4), 695-718.
- Sartori, G.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wedler, Jillian. 2011. “Can Islamists Become Moderates? Rethinking the Inclusion-moderation Hypothesis.” *World Politics* 63(2), 347-376.
- Share, D. and S. Mainwaring. 1986. “Transitions through Transaction: Democratization in Brazil Spain and Spain.” In *Political Liberalization in Brazil: Dynamics, Dilemmas, and Future Prospects*. Boulder: Westview.
- Spiegel, A. 2015. “Succeeding by Surviving: Examining the Durability of Political Islam in Morocco.” Brookings Institution.
- Strom, K. 1990. “A Behavioral Theory of Competitive Political Par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5-598.

- Tezcür, G. M. 2010. "When Democratization Radicalizes: The Kurdish Nationalist Movement in Turkey." *Journal of Peace Research* 47(6), 775-789.
- Yerkes, S. 2018. "Too Strategic for the Base: How the Nidaa-Ennahdha Alliance Has Done More Harm Than Good." *Issue Brief* 4.
- Yildirim, A. Kadir and Elaine Zhang. 2021. "The Party of Justice and Development and Post-2011 Economic Policymaking In Morocco."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 Abstract

## Changes and Challenges Facing Islamic Parties after the Arab Spring: Transformation of Tunisian and Moroccan Islamic Parties from Marginalized to Established Political Parties

So Yeo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Arab Spring, the rise of Islamic parties has been one of main political change that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have experienced. Due to the uprisings, the existing authoritarian regimes were removed and public demand for political reform increased. In addition, Islamic parties emerged as a new political alternative because the Islamist movements were recognized as anti-government groups who were against political repression from authoritarian regimes. Therefore, many Islamic parties in countries such as Egypt, Tunisia and Morocco won the first elections after the Arab Spring. Except for Egypt, the Islamic parties sought to moderate their attitudes and ideologies to win the majority of votes in elections and become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As the Islamic parties became the main political players, the citizens' demand for Islamic parties to ignite political change increased. However, these parties failed to deliver their political promises to supporters and lost the recent elections in Tunisia and Morocco. Furthermore, Islamic parties face a dilemma between being a religious group and a popular political part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Islamic parties' transform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xcluded political groups becoming main political parties and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by exploring the political challenges faced by Islamic parties as they became moderate and dominant powers in established

politics.

**Keywords |** Islamic party, religious party, catch all party, moderation, Arab Spring